

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

1.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(이사장 정종섭)와 국회입법조사처(처장 심지연)는 지난 7월 12일 14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'법학전문대학원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'을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.
 - 제1주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실태와 과제, 제2주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문제와 교육과정의 개선방향, 제3주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향, 제4주제 변호사시험법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이 있었다.
 - 각 주제별로 홍일표 한나라당 국회의원,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, 법원행정처, 법무부, 대한변호사협회, 법학전문대학원 등 각 기관을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발표·논의가 이루어졌다.
2.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(이사장 정종섭,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외 24인)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.
3.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(1) 로스쿨은 시대의 올바른 요청입니다.
 - (2) 로스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.
 -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로스쿨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졸업생은 모두 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 - 타 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로스쿨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.

-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 도입은 불필요합니다.

(3) 정부는 우수 법률가의 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스쿨에 재정 지원하고 정원을 증원해야 합니다.

- 로스쿨은 교육을 통해 사회 전체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며, 엄격한 인가주의에 의하여 규제받고 있습니다. 로스쿨의 이러한 공공적 성격에 맞추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
- 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도 법조인 양성의 공익성을 반영하여 국가에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

- 지나치게 적은 정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, 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교과목 개설과 충실한 교과과정 운영 등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정원은 증원되어야 합니다.

(4) 로스쿨 출신 법률가의 배출에 따른 법조 직역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.

-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변호사들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부처, 사법기관, 국제기구 등의 임용과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.

- 변리사, 세무사, 법무사 등에 의하여 변호사의 업무가 침해받도록 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한 변호사 기능의 확대와 보장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관련 개정법률안들은 철회되어야 합니다.